

속리- 법주사자연관찰로 연령별 시나리오(어린이)

1. 기획목적

- 가족단위나,단체및 개인별 어린이들과 함께 자연관찰로에서의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하여 짧은시간에도 집중력을 높여주는 시나리오입니다.

2.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방법

- 대상자 : 초등학생과 가족단위, 성인(20명)
- 대상지 : 법주사자연관찰로
- 준비물 : 리플렛, 안내서
- 계절 : 4계절
- 소요시간 : 1시간
- 관찰로 길이 : 700m

3. 프로그램 시나리오

(1)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속리산 자연학습 탐방로를 안내할 속리산자연환경안내원 ○○○입니다.

어느 학교(시·도·단체)에서 왔어요? 예, 학교(고향, 단체)자랑을 한번 해 볼까요? (이야기가 끝나면 박수를 보내준다) 예,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서로 마주보고 인사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위에 있는 나무랑도 인사해 보세요. 안녕, 나무야~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숲속의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2) 숲 이야기

자 먼저 숲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숲은 우리에게 여름엔 시원하게 해줘요. 나뭇잎과 가지들이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나뭇잎이 숨 쉬는 동안 온도를 내려 주기 때문에 숲 속은 여름에도 시원하고 상쾌해져요. 여러분들도 지금 느낄 수 있나요? 숲이 얼마나 고마운 친구인지 알겠죠.

그리고 숲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준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숲에서 얻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쓰는 공책, 친구들이 부모님과 살고 있는 집, 책상, 연필, 이런 것들이 모두 나무에서 얻는 것들이에요. 또한 맛있는 버섯, 열매, 나물 등도 우리에게 선물하며, 야생동물들의 소중한 놀이터이기도 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볼까요. 어때요(대답을 기다린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나요. 숲의 향기는 머리를 맑게 해줘요. 울창하고 건강한 숲은 좋은 향내를 내뿜어 사람의 머리를 맑게 해주지요. 부모님이랑 목욕탕에 자

주 가지요. 목욕탕에서 몸을 깨끗이 씻듯이 숲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씻어 줘요. 이런 것을 어른들은 삼림욕이라 부르기도 해요. 다시 눈을 감고 냄새를 느껴보세요.

숲은 녹색 댐입니다. 왜 녹색댐 일까요? 숲은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많은 비가 오고 있어요. tv에서 많은 비로 고생하는 이웃을 본적이 있을 거예요. 숲은 이런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우리가 마시는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흘려보내 주지요. 만약에 산에 나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겠죠.

스펀지를 생각해 보세요(스펀지밥 아시죠). 숲을 스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빗물을 머금었다가 천천히 흘려보내 산에서 홍수조절을 할 수 있죠. 또한 물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도 산지의 계곡 물이 마르지 않게 조금씩 흘러내리도록 하여 물이 마르지 않도록 조절하기도 합니다.

스펀지로 실험을 해볼게요. (스펀지에 물을 적셔서 흡수시키는걸 보여주고 천천히 짜준다.) 이처럼 산에 숲이 우거져 있을 경우 녹색댐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발밑을 한번 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대답을 기다린다) 흙, 돌멩이, 나뭇가지……. 예,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땅 속에서 말이죠. 발아래에는 10만 마리의 생명체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여러분의 발바닥 및 몇 줄의 흙에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수보다 더 많은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이들 생명체는 여러분처럼 지구에 살고 있는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이제 땅을 밟아도 조심해야겠지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도중 정해진 숲길을 벗어나지 말아야겠지요.

(3) 소나무 이야기

우리나라에 사는 나무 중 가장 넓은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소나무로 지은 집에서 살았어요. 죽으면 소나무로 만든 관속에 묻힙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병원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엔 살고 있는 집에서 태어났지요. 아기가 태어나면 소나무 가지로 금줄이라는 것을 만들어 대문에 걸기도 했어요. 지금은 볼 수가 없지요. 여러분 추석 때 송편 많이 먹지요. 송편을 만들어 삶을 때에도 솔잎을 바닥에 깔고 삶는 거예요.

속리산에 문장대 가다가 저수지가 나오는데 그 근처에 황금소나무도 있어요. 지나가면 꼭 한번 봐주세요. 정말 황금색입니다. 지금은 색깔이 약간 바래긴 했지만

만......

(4) 나무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한 어린이를 지목한다) 이름을 말해볼까요. 예쁜 이름이네요. 여러분처럼 나무들도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무의 이름은 노린재나무라고 해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금방 생각하기 어렵죠. 나무를 태우면 노란색 재가 남아 노린재나무란 이름을 얻었어요. 옛날에는 노린재나무를 태워서 그 재로 옷에 노란색 물을 들어 입었어요. 이렇게 물을 들이는 것을 염색이라고 하지요. 지금은 시장에서 살 수 있지만 예전에는 숲속에서 아름다운 색을 얻기도 했어요.

노린재나무를 봐보세요. 크기가 작죠? 작은 키 나무입니다. 잎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모양이죠? 평범한 타원형이죠. 만져보면 다른 나뭇잎에 비해 약간 두껍다는 느낌을 줍니다. 꽃은 5월에 피는데 아주 예뻐요. 꽃이 피어나면 작은 꽃송이들이 몽실하니 모여 몽게몽게 구름을 만들 듯 환하고 아름답습니다.

(5) 옷 색깔을 바꿔 입어요

가을이 되면 산이 빨갈게 변하죠. 그런 것을 나무가 단풍든다고 합니다. 그런 나무 중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바로 단풍나무랍니다. (해설안내판을 보여주며) 여기 사진을 봐보세요.

보통 잎이 5~7개로 갈라져 있는 걸 단풍나무라고 해요. 잎이 9~11개로 더 많이 갈라져 있는 건 당단풍이라 하고요. 잎이 5개로 갈라져 사람의 손 모양과 비슷한 잎을 가진 것은 고로쇠인데요. 이 나무에서는 봄이 되면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물이 나온답니다.

잎이 세 개가 붙어 있는 건 복자기구요. 자세히 보면 다른 단풍들처럼 잎이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잎 세 개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건 잎이 깊게 세 갈래로 갈라져 있는 신나무입니다. 같은 단풍나무인데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다 다른 색의 옷을 입고 있죠. 이처럼 단풍나무들도 다 다른 색으로 물든답니다. 모두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소중한 친구들이예요. 그럼 우리가 직접 아름다움을 찍어 볼까요.

♣ 프로그램 1. 카메라 게임

자연을 순간적으로 포착함으로써 평소에는 깨닫지 못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카메라 맨’ 과 ‘카메라’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게임이다.

1) 참가자들을 2인 1조로 나눈다. 한사람이 ‘카메라’, 또 다른 사람은

- ‘카메라 맨’ 이 되어 ‘카메라’ 가 된 사람이 눈을 감는다.
- 2) ‘카메라 맨’ 은 ‘카메라’ 의 손을 잡고 주위를 걸으면서 자신이 찍고 싶은 것을 찾는다.
 - 3) 사진을 찍는다. ‘카메라 맨’ 은 찍고 싶은 대상물 앞으로 ‘카메라’ 를 데리고 가서, 찰각하고 말하면서 ‘카메라’ 의 컷볼을 잡아당긴다. 그 순간, ‘카메라’ 는 눈을 크게 뜨고, 눈앞의 풍경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긴다. 2-3초 후 ‘카메라’ 가 다시 ‘찰각’ 하고 말하면서 컷볼을 당기면 ‘카메라’ 는 눈을 감는다.
 - 4) 이렇게 몇 장의 사진을 찍고 난 후 ‘카메라 맨’ 과 ‘카메라’ 는 서로 역할을 바꾸어 같은 장수의 사진을 찍는다.
 - 5) 빈 종이에 그린다. 자신이 ‘카메라’ 였을 때에 찍은 사진 중에서 제일 인상에 남는 것을 빈 종이에 그려 ‘카메라 맨’ 에게 보여준다.

(6) 다람쥐의 소중한 먹이

산골짜기에 다람쥐가 소풍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대답) 네 그렇죠. 도토리예요. 이 나무가 바로 도토리가 달리는 참나무예요. 진짜 나무라 하여 참나무라고 불리는데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재미있는 참나무들의 이름을 알아볼까요.(해설안내판을 가리키며)

상수리나무 : 옛날 나라에 전쟁이 있었을 때(임진왜란) 임금님이(선조) 피난을 갔었어요. 싸움중이라 먹을 것이 부족하여 도토리로 목을 만들어드렸는데 너무 맛이 있어서 궁에 가서도 목을 찾게 되었어요. 임금님의 상을 수라상이라 하는데 그 상에 올려졌다 하여 상수리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굴참나무 : 껍질을 만져볼까요. 어때요(대답을 기다린다) 이 나무의 두꺼운 껍질은 거칠면서도 푹신푹신하죠. 마치 굴껍질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 나무의 껍질은 병마개로 사용되고 물이 안 들어가고 불에 잘 안타 강원도 지역에서는 지붕으로 사용했어요.

줄참나무 : 참나무 중에 가장 잎이 작아 줄병참나무라고 하여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참나무 중에서 키가 가장 크고 이 나무의 도토리로 만든 목이 가장 맛있답니다. 키가 조금 작거나 덩치가 작다고 친구를 괴롭히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신갈나무 : 옛날에는 따뜻한 겨울을 지내기 위해 나무로 불을 지폈어요. 나무를 태워서 물도 따뜻하게 하고 방도 따뜻하게 했죠. 그리고 지금은 좋은 신발을 신고 있지만 예전에는 짚으로 만든 짚신을 신었어요. 나무를 구하러 간 나무꾼들이 짚신 바닥이 헤어지면 이 나무의 잎을 깔아 신었다고 해요. 참 고마운 나무죠.

떡갈나무 : 여러분 음식이 상하지 않게 어디에 보관하나요. 그렇죠. 냉장고에 보관하죠. 그럼 냉장고가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대답을 듣는다)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나무는 잎이 넓어 떡 같은 음식을 싸기에 좋아서 떡 싸는 나무란 의미의 떡갈나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지금에 조사를 해보면 이 나무의 잎에는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신기하죠.

(7) 산딸나무의 지혜

이건 산딸나무예요. 열매가 딸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생겨서 산의 딸기다 해서 산딸나무랍니다. 산딸나무는 꽃이 어딜까요? 보기엔 이게 꽃같이 보여도 안에 자세히 봐보세요.

아름다운 꽃잎처럼 보이는 것은 꽃잎이 아니라 꽃받침이라는 것이예요. 진짜 꽃은 그 속에 아주 작게 피어있어요. 왜 꽃보다 잎이 더 화려하게 변했을까요. 그건 꽃이 작다보니 곤충들이 잘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부르기 위해 산딸나무가 지혜를 발휘한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은 더 지혜롭고 신비스럽답니다.

빨간 골프공 같은 둥근 열매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모습은 어떤가요? 붉게 익어 말랑말랑할 때 먹으면 달작지근하답니다. 새와 곤충들도 좋아해요.

(8) 조릿대로 배를 만들어 보아요

여러분 대나무라고 들어봤나요. 예, 이것도 대나무의 한 종류예요. 조릿대라고 하지요. 복조리를 만드는데 사용 되요. 복조리는 어른들이 만드니까 우리는 조릿대로 배를 만들어 볼까요.

♣ 프로그램 2. 조릿대로 배 만들기

미리 조릿대를 준비해 둔다.

해설가는 최소한 조릿대 잎을 이용해서 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조릿대 잎을 이용하여 배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물론 사전에 일인당 배 하나씩만 만들도록 주의 사항을 전달한다. 만든 배는 잘

듣고 다니다가 계곡 물에 가서 띄워 보내도록 안내한다.

만약 시간이 부족 하다면 미리 만들어 놓은 조릿대를 이용하며, 만드는 방법만 설명해 준다.

♣ 프로그램 3. 계곡에 발 담그기 탁족

조릿대 배를 띄우면서 함께 진행해도 좋다.

한 여름에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방법으로 세숫대야에 발을 담그고 한 여름의 무더위를 식혔었다. 비슷한 방법을 자연 속에서 응용해 보자. 산 속을 흐르는 계곡에서 돌 위에 걸터앉아 신발을 벗고 시원한 계곡의 물살에 발을 맞기며 발을 간질이는 시원한 계곡물의 느낌을 즐겨 보자, 조용히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생각한 후 서로 서로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9) 쓰러진 나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옛날 한 스님이 두 동자승에게 나무를 해 오라고 일렸어요. 산속으로 들어간 두 동자승 중, 한 동자승은 생생한 나무를 베어 땀감을 해 왔고 다른 동자승은 죽어 쓰러진 썩은 통나무를 짊어지고 돌아왔어요. 두 동자승의 나뭇짐을 살펴본 스님은 한 동자승을 꾸짖었어요. 꾸중을 들은 동자승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꾸중을 들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기로 해요.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들을 듣는다)

스님은 썩은 나무를 해온 동자승에게 꾸중을 하셨어요. 이유를 들어보세요.

나무가 죽어서 썩기 시작하면, 수많은 곤충, 식물의 뿌리, 버섯 등이 썩은 나무를 먹으며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 버섯이나 벌레를 먹기 위해 새가 날아들어요. 그리고 나무가 더 부드러워지면 작은 생물들이 들어와 살면서 먹이를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무로부터 나온 영양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썩은 통나무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꾸준한 영양공급 등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때문에 숲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족이에요.

나무는 죽었지만 더 많은 식물, 동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자연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흘러간답니다.

과연 통나무 속에 누가 살고 있는지 돋보기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 프로그램 4. 나무 껍질

나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크기와 굵기가 제각각 다르다. 숲 속에 들어가서 해설가는 참가자들에게 자기에게 알맞은 나무를 찾아 한 번 안아 보도록 지시한다. 참가자들은 자식들이 껴안은 나무들이 비록 말없는 나무들이지만 그 나무로부터 순수하고 벅찬 사랑을 피부로 느낄 것이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냄새를 맡아보고 나무껍질이 주는 촉감을 느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은행나무는 약간의 쿠션이 있는 부드러움을 주고, 소나무는 약간은 까칠까칠한 느낌이 있다. 늘씬하고 수피가 붉고 아름다운 삼나무와 자작나무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촉감이 있다. 우리나라 소나무가 주는 느낌은 무엇일까? 글로 적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하여야 할까?

(10) 마음 전하기

오늘 친구들 많이 사귀었나요. 학교에 돌아가서도 주변에 있는 꽃과 나무들 그리고 나비와 친구해 보세요. 이름을 불러주고 보살펴 주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위해서 쓰레기 같은 것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죠. 선생님처럼 아까 사귀 친구에게 약속할 수 있죠. 그럼 아쉽지만 우리 헤어지기로 해요.

우리 인사할까요.